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강 근대성

제1강 1교시

◆ 근대성의 이해

1. 근대성=modernity는 전통=tradition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traditio는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문화[傳統]를 존중하는데 비해 근대성은 전통과 대립해 새로운 세계를 열려고 했다. ⇒ 이런 충동은 계속되어 ‘새로움’은 근대성의 가장 두드러진 징표로 자리잡는다.

전통은 B.C. 6~8세기에 본격적으로 형성이 된다.

시대적으로 대체적으로 17세기가 분기점이 된다. 유럽에서는 절대 왕정의 등장과 상업 자본주의의 형성, 신흥 시민 세력의 등장,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등장, 종교에서의 개혁, 인간적인 문화에의 긍정 등의 변화가 이어졌다.

동북아에서는 문화적인 형태로 근대적인 삶의 방식들이 등장했다.

예) 고증학, 상업의 발달, 조민(町人) 문화, 문화에서의 새로운 시도들...

근대성을 특징짓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의 긍정이다.

→주체성의 등장이 가장 근본적이다.

인간의 주체성은 두 가지의 상이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1)합리성의 측면과 (2)욕망의 측면이 나란히 진행됨.

⇒ 합리성이 주로 객관세계의 이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면 욕망은 인간 자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로 볼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대부 계층의 지배가 약화되면서 귀족계급에서 신흥 시민 계급으로. 당시의 시민 계급은 농민까지 포함한 오늘날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주축을 이루는 신흥 상인 계층의 사람들(부르조아)을 말한다.

문화의 갈래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를 이루고 있는 많은 갈래들이 동시에 거대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하나의 담론이나 한 역사 계열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결정적인 변화로 본다.

2. 근대와 근대성은 다르다. 근대는 시대적 개념이고 근대성은 문화의 양태들에 대한 개념이다. 근대성이 흔히 ‘근대’로 불리는 시대(대략 16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에 생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꼭 이 시대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 하한선이 모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

근대성은 문화의 ‘성격’을 뜻하며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상당 부분 근대성 속에서 살고 있다. 탈근대성 역시 일정한 시대적 함축을 띠지만(19세기 말 이후) 문화의 성격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따라서 근대에서도 탈근대성을 발견할 수 있다. 흠은 18세기 사람이지만 굉장히 탈근대적인 사람이었다.

⇒ 근대성/탈근대성은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근대성’의 개념이 정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모더니티와 모더니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모더니즘은 영문학의 주요 개념으로서 그 성격은 오히려 탈근대적이다. 1970년대 이후 건축에서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포스트모더니티와 구분되어야 한다.

⇒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티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다.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특정한 문예사조이고, 모더니티, 포스트모더니티는 매우 넓은 역사적-철학적 개념이다. 모더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도 문학, 회화, 건축, ... 등에서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문학이나 회화에서의 모더니즘은 고전주의나 사실주의와 대비가 되는 탈근대적인 사조이지만 건축에서의 모더니즘은 오히려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조이다.

3. 근대성 자체가 규정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다. 그것은 때로는 합리주의적(신화/종교/형이상학 등을 거부하고 경험과 논리, 수학, 실험, 관찰 등을 통해 세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인 성격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욕망론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 근대 초기에는 합리성이 좀 더 앞섰고 근대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면서 욕망의 측면이 좀 더 전면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욕망은 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탈근대적인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근대성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적 합리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주체성과 욕망이 긍정되는 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자가 주로 앞서고 후자가 비교적 늦게 부각되었기에 후자는 탈근대성의 특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다의성은 인간이라는 주체 자체의 다의성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이성적 주체에서 욕망하는 주체로 바뀌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근대적 주체를 이성적 주체라 할 수 있지만 이미 욕망적 주체의 씨앗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근대성을 문화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인가에 따라 논의의 구도가 달라진다. 근대성이란 단일한 개념이기보다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1) 근대성은 형이상학의 거부를 특징으로 한다. 과거에는 모든 종류의 과학들이 이 세계에 대한 거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전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물리학이나 생물학, 사회과학 등이 발달한다.

⇒ 17세기 이후에는 형이상학의 거대한 체계가 와해되고 각각의 문화와 학문이 독립적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예) 조선 시대의 그림이나 음악 같은 예술은 옛날의 성리학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을 전제한다. 하지만 근대가 되면 모든 담론들이 거대한 형이상학이라는 틀을 전제하지 않고 각자의 자율적 원리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과거 형이상학의 자리를 인식론이 차지하게 된다.

→ 개별 과학들이 분화되어 발전되기 시작하고 형이상학의 자리를 인식론이 차지하게 된다.

2) 정치적인 것이 형이상학에서 독립해 자체적으로 추구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권력의 근거가 형이상학적 근거 위에서 움직였다. 근대에는 시민계급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확립되어 나간다. 과학기술이 자본주의와 결탁하기 시작한다.

3) 문화의 자율성이 강조된다. 예술가 자신의 주체적 창조가 강조되고 각 장르들 사이의 자율성도 강조된다. 과학기술, 자본주의와 더불어 문화생활이 근대인들의 주요 특징을 이룬다.

제1강 2교시

◆ 동북아의 철학과 서양의 근대문화

▲본연과 원융

전통 사회에서 철학은 대체적으로 관조적 성격을 띠었다. 주희에게서 사물의 理는 本然이었고 수많은 리들의 체계는 圓融의 성격을 띤다.

중세라는 시대의 성격은 철학적으로는 본연과 원융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1)본연→마땅히 어떤 무엇을 해야한다는 당위가 전제되는 것

(2)원융→모든 사물은 각자의 理를 가지고 있고 그 理들의 관계는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부분과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것

⇒ 여기에는 **도덕형이상학의 구도와 심미적 관조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格物致知’는 사물들의 세세한 면면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사물에 대한 조작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선입견, 편견, 분노, 아집 등이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으면 그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居敬窮理’는 바로 이 생각을 나타낸다.(금과 은의 비유→어떤 금에 은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은 순수한 금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것은 객관주의적 성격의 과학도 주관주의적 성격의 불교와도 다른 그 무엇이다.

주희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물들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아니라 세계 전체에서 사물들이 보여주는 본연성과 원융성이었다.

주희의 주지주의와 관조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대나무를 계속 바라보았다는 왕양명의 이야기(왕양명이 주희의 주지주의와 객관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계속 바라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당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이란 얼마나 관조적인 것이었던가를 말해 준다.

⇒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대부 계층이 가진 특성이기도 하다.

중인 계층과 사대부 계층 사이에는 단절이 있었고, 그래서 형이상학과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했을 뿐 과학은 발달하지 않았다.

예) 생명형이상학과 (한)의학이 있었을 뿐 생물학은 없었던 것이다.

청대, 조선 후기, 에도 후기 정도(17세기 정도)에 이르면 사회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며 경험적 측면을 중시하는 사상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자연 연구에서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바람에 대한 화담 서경덕의 설명에서 한 예를 볼 수 있듯이 자연의 이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서경덕은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는 다른 성리학자들이 잡학이라고 불렀던 학문들에 몰두했던 사람이었다).

▲서양의 근대문화

그러나 **사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 이해는 유럽에서 발달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하거나,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전통 철학에서 ‘theoria’는 관조를 뜻했으며, 형상들의 원용한 체계를 관조하는 것이 중요했다. 중세에 가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진다.

→신학적 구도를 자연에 투영.(자연을 문화에 투영한 주희와 대조)

⇒ 서양사람들은 신학적인 세계관을 자연에 투영했지만 동북아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사회를 만들어갔다.

헬라스적 합리주의와 히브리적 초월론이 대립했다. 서구 중세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신과 세계를 연속으로 볼 것인가 불연속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 기독교의 전통 교리는 신과 세계를 불연속으로 본다.

이슬람 철학자 아베로에스가 서구 스콜라철학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이유는 신조차도 논리의 법칙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근대문화는 헬레니즘/히브리즘을 점차 눌러서 그리스적인 합리성이 조금씩 승리를 거두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철학도 결정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 철학도 결정론인데 흥미로운 점은 그 결정론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 헬라스의 결정론이 우주가 카오스, 즉 혼돈이 아니라 이법에 따라 움직이는 코스모스라는 데에 있다면 히브리 종교의 결정론은 이 세계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근대가 성숙해가면서 점차 헬라스적 사고가 힘을 얻게 된다. 기독교도 물론 결정론(그러나 변덕스러운 결정론). 이신론적 경향이 강해짐. 과학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한 배경. 그러나

합리적 전통과 경험적 전통이 평행을 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중세철학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합리적인 것과 양립하지 않고 경험주의와 양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관조에서 분석/조작으로 바뀜. 실험적 태도들이 등장, 도구들(현미경, 망원경 등)의 사용, 신분적 이동. 그러나 본격적인 과학들은 여전히 헬라스적 특징을 띠었다. 처음에는 기하학적 설명이 주류를 이루었다→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기 힘든 이유.

⇒ 설명방식이 점차 대수적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데카르트의 해석기하학이 분기점).

하늘에 대한 관조에서 구체적 연구로. 망원경에 의한 달 관찰, 케플러의 타원, ... 등.